

2023

Korean Young Architect Award Exhibition

젊은
건축가
상

Meaning,
Futility,
Attitude

의미,
무용,
태도

Jinhyu Kim
Hojin Nam

KimNam
Architects

Youngsoo Kim

More Less
Architects

Jamin Seo

AGIT
STUDIO

김남진
호진
휴진

김남
진
축

김영수

모어
레스
건축

서자민

아지트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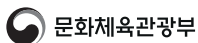


젊은 건축가상

젊은 건축가상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수상 제도로 한국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젊은 건축가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을 통해 그들의 건축적 세계를 피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젊은건축가상은 더 나아가 한국건축이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와 교류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후원: 블라코리아, (주)삼익산업, 에너지엑스(주), 디자인후즈, (주)이안알앤씨

2023 젊은건축가상 전시
2023년 12월 20일—30일
10시—19시(월요일휴관)
문화역서울 284 RTO

전시 오프닝 및
도록 발간 기념회
2023년 12월 20일(수요일)
17시—19시
문화역서울 284 RTO

2023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대담
2023년 12월 20일(수요일)
15시—17시
문화역서울 284 RTO

김남건축



위치 Haute Nendaz, Switzerland
 용도 단독주택
 준공연도 공사 중
 사진 김남건축

김진휴, 남호진

프라콩뒤 주택(Chalet à Pracondu)

이 프로젝트는 스러져가는 오두막들에 새 삶을 주고 싶다는 건축주의 바람에서 출발했다. 백여 년 전, 스위스의 산속 마을 오뜨-난다(Haute-Nendaz)에 지어진 나무 오두막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며 점점 부서져 가고 있었다. 목수 장인인 건축주는 이런 집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몇 년 전부터 마을에 드는 오두막을 사서 모으고 있었고, 그중 세 채를 옮겨 새로운 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건축주와 함께 지금의 건축과 예전의 건축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새집을 품은 옛집, 옛집을 입은 새집을 만들기로 했다. 새집은 콘크리트로 짓되, 목재 거푸집을 가로로 길게 대어 콘크리트에 나무 무늬가 새겨지도록 했다. 콘크리트 집과 나무집의 사이 공간은 반 외부의 공간으로 계획했다.

KimNam Architects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용도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준공연도 2019
 사진 김경태

Jinhyu Kim, Hojin Nam

Quad

내재적 관점으로 건축을 바라볼 때, 건축은 마치 예술과 유사한 감상의 대상이 된다. 덕분에 건축가들은 사고의 자유를 얻고, 다양한 것과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 Quad의 프로젝트에 대한 출발도 다분히 이러한 생각에 기인하였다.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에 대한 탐구이며, 그 차이점을 외관의 형태, 내부 평면의 구성 방식, 창 의 형식, 외장재로 확연히 다르게 구현하였다.



건축사무소 김남
 건축사무소 김남은 2014년 스위스의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건축설계사무소이다. 2015년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건축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관점의 존재를 중시하며, “어제 옳은 것이 오늘 틀릴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의식하고 다시 그린다.

김진휴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위스의 Herzog & de Meuron,

일본의 SANAA, 미국의 SO-IL에서 건축실무를 익혔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남호진 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Pelli Clarke Pelli Architects, 스위스의 Herzog & de Meuron, 한국의 남산 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다. 2023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www.kimnam.co.kr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4-8
 용도 근린생활시설
 준공연도 2021
 사진 조엘 모리츠

김영수

도산 알로하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 구조 위에 덧붙여진 독립된 파사드(façade)는 지면과 떨어져 2층부터 구성되며 진입계단, 엘리베이터 진입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전면에 드러난 직관적인 외부계단은 각 층 엘리베이터 홀로 연결되며 5층 테라스까지 이어져 동선의 간결함을 유지한다.

상업공간의 쓰임은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쓰임으로 의도가 보이지 않는 형식이어야 한다. 각 층으로 분리된 상업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공간 구조를 가지며 모듈화 된 파사드(façade) 창은 전체공간으로, 또 구획된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계획하였다.

More Less Architects



위치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용도 단독주택
 준공연도 2018
 사진 이택수

Youngsoo Kim

나지요네

북동쪽으로는 한라산, 남쪽으로는 산방산, 그리고 서쪽 대지 끝에는 제주 돌담이 있다. 이곳의 건축은 형태가 아닌 주변에 순응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공간이어야 했다. 자연 위의 건축은 가능한 드러나지 않는, 절제된 재료와 공간, 형태와 구성으로 계획한다. 작은 중정으로 진입하는 공간은 틈마루 형식의 단이 내부공간으로 전개된다. 각각의 공간은 독립된 개구부에서 주변 요소(한라산, 자왈, 산방산, 돌담)를 하나하나 담아내며 독립된 외부공간을 갖는다.

공간의 구조는 기본적인 모듈을 통해 그리드를 만들고 비워진 공간과 채워진 공간으로 구성된다. 재료인 제주 송이석은 마당의 조경석으로, 거친 콘크리트 폴리싱으로 골재의 단면 속에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드러난다.



모어레스 건축사무소

급변하는 현 시대에 조금은 더 명상적인 태도로 공간을 바라보고자 한다. 사람이 점유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건축이라는 언어로 삶의 소소한 주제를 이야기하며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건축은 실용적인 물체로서 현 시대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속에서 예술의 영향력을 찾고 감각의 공간들을 탐구해야 한다.

고귀한 신념으로 세상을 구원할 건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형태를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도 아니다. 단지 현 시대의 무더진 감각을 다시 불러 일으킬 공간을 고민하며 건축을 통해 일상의 조건을 건네고자 한다. 실용적인 건축 속에

무용한 가치와 낭만이 깃들여 새로운 경험의 공간으로 드러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아름다운 공간을 찾고 있다.”

김영수는 인하대학교와 인하대학원에서 공부하였으며 프랑스건축사회 11th 장프루베 & 김중업 Scholarship에 선발되었고 (주)해안건축과 원로원 아키텍스, 프랑스 파리DPA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등에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로 실무를 쌓았다. 2020년 제주건축문화대상에서 ‘나지요네’ 프로젝트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모어레스건축사무소 대표이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다.

www.morelessarchitects.com

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722-2
 용도 근린생활시설
 준공연도 2023
 사진 PHSG

서자민

프로젝트 양평

양평역 인근 시내 코너 부지는 유의미한 맥락을 읽어내기 어려운 상태로 어수선하게 개발되고 있다. 길고 이형진 대지에서 건폐율 20%의 제약사항을 벗어나, 주변 지역에서 정체성을 만들고 분위기를 선점할 수 있기 위한 고민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는 부지 내 작은 고저 차까지 활용한다.

단순하고 목직한 덩어리는 무심한 듯하면서도, 정교하게 계획된 비례와 질감을 가지고 존재감을 발한다. 돌출된 수직 코어부는 사람들을 이끌고 장소를 인지시킨다. 다른 크기로 가공된 벽돌의 적용, 통일된 금속의 색 등 ‘디테일’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덩어리’라는 주제를 위해 수렴되고 있다.

AGIT STUDIO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99
 용도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준공연도 2020
 사진 신경섭

Jamin Seo

모따기99

밀집한 도시주거지역에서는 제약을 만드는 물리적 규제들과, 또 그것에 반하는 개별적 욕망이 공존하고 싸운다. 법규에 따라 세워진 건물과 그 위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덧대진 행위들이 주거의 유형으로 자리 잡아 도시 주거 풍경을 지배하고 있다. ‘모따기99’는 그 유형에 대한 도전이자 질문에서 시작했다.

‘모따기’는 우리가 적용한 하나의 방식으로, 제약적 환경에서 비롯된 경직된 경계들을 모호하게 만드는 시도이다. 적층 구조를 와해하는 다각적인 모따기와 그로 인한 매스 덩어리의 조형성이 더욱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규제와 경제성의 논리로 복제되는 공동주택의 존재 형식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다.



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서자민은 2017년 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 사무소를 설립하고 대표 건축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건축학과와 UPENN 건축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원오원 아키텍스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와 설계 스튜디오를 맡고 있다. 아지트스튜디오의 건축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과 상황에 대한 고유한 해석에서 출발한다.

온기를 머금지만 차가움과 낯설을 유지하는 건축이다. 이를 위한 건축적 집요함을 만드는 곳이 아지트이다. 건축가 허근일은 객원 파트너로 작업과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www.agit-studio.com

2023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대담 세부일정

시간

대담
주제

대담자

15:00—
15:30

방향

서자민

아지트스튜디오

허근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15:30—15:40

휴식

15:40—
16:10

집착

김영수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최진석

적재건축

16:10—16:20

휴식

16:20—
16:50

미정

김진휴

김남건축

남호진

김남건축

김재관

무회건축연구소

16:50—17:00

자리정리

17:00—
19:00

전시오프닝 및
출판기념회